

연구비 0.1% 유감

崔命喆/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모람

1. 변화

전쟁후 폐허의 상태에서 정치·사회·문화적인 여러가지 질곡을 겪어 오면서도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衣, 食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규모면에서는 어느 정도 중진국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토대의 안정은 한국의 역사상 중요한 전환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부분별로 많은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더불어 작금의 세계사적 변환 또한,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통신·교통등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삶의 총체적인 변화와 과거 1, 2차 세계대전등 한 세기동안의 냉전국면에서 새로운 세계질서개편으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담아내는 물리적 장치로서의 건축 또한 여러가지 변화의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급격한 후기산업 도시화 과정에 따른 초기도시 건물유형(Building Task)들의 다양화와 이에 의한 도시기능의 재조정.

둘째로,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의료주거(Hospitel)등 과거의 주거개념과는 시간적, 공간적, 기능적으로 다른 양태의 주거공간들의 등장.

세째로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등 정보화 사회로 향한 건물 내부의 프로그램 변화.

그외 교통·공해·쓰레기 등의 도시환경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변화등은, 과거의

도시공간이나 건축물과는 다른 근본적이고 새로운 21세기의 지표를 요구하고 있다.

2. 문제

현재 한국의 건축계는 최근의 부동산 가치급등과 미개발토지에 대한 세금중과에 따르는 건축붐으로 유례없는 '건축허가 제한'이라는 경우까지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풍요로움과는 달리, 표류하며 급변하는 도시건축에 관한 정책·제도와 설계시장의 예측키 힘든 변화 및 전문성이 상실된 설계조직의 와해등으로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위기가감이 엄존하고 있다.

최근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제 실시 등과 정책·제도변환

조석지변이라 할 수 있는 건축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개정은 투기장과 다름없는 부동산 건설 수요와 관련하여 건축계 자체를 뒤흔들고 있으며, 건축가로 하여금 이러한 널뛰기에 동조하게 만들면서 가히 허가방(?) 전성시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 그동안 누더기와 다름없이 정치, 경제적 입김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왔던 기존 법령의 문제들에 대한 새시대의 건축철학에 의거한 근본적인 개혁없이 수시로 덧칠되는 이러한 법개정은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화에 부합되는 도시건축의 방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우루과이라운드와 종합건설업면허

외국건축가의 전문성 및 국내 대재벌의 자본력에 대하여 피해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국내 설계사무소의 입장으로는 전면 부정의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으나, 실질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용역업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 또한 전체 국가 경제면에서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 같다.

이러한 설계시장의 판도 변화는 기존의 설계사무소의 전문성 문제나 영세성에 심각한 변화를 예고한다 할 것이다.

• 설계조직과 전문인 행태

최근의 건축붐에 의하여 설계사무소 중간전문인들의 대거 소형사무소 신설은 설계사무소 노조의 등장과 더불어 설계=창조적 행위에 따르는 기존의 徒弟的 설계조직의 와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술한 설계시장의 변화와 함께 건축가의 기존 사회적 위상조차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연구

앞에서 개략적으로나마 거론한 ‘변화와 문제’들은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대다수의 도시 및 건축 전문인들에게 수많은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실상 건축계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 실천적 자세 및 설계조직이나

제도권의 탄력성 등이 미약한 상태이며, 따라서 거의 수동적으로 방관하며 남의 탓(?)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을 돌려보면 한국의 기존 산업계들도 비슷한 실태인 듯하나, 최근 이러한 여건을 극복키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축계의 경우 겨우 작년부터 출범한 건축사협회의 ‘법령 연구소’가 고작이며, 이 또한 건축사사무소 연간 예치비 가동규모가 1천억원 가까이 되는 점을 살펴보면 겨우 0.1%에 지나지 않는 예산의 연구소이다. 일년 금리를 10%라 하더라도 그 이자의 1%에 지나지 않는 예산으로 무엇을 연구할 수 있을지 가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협회는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건축인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전술한 모든 ‘변화’와 ‘문제’들에 능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까지 이루지 못한 수 많은 과제들에 대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다가올 21세기의 도시환경문화를 주도적으로 창조해 나가야 하겠다. 더불어 건축인들이 지금까지 참여치 못하고 지나쳐온 과거의 Olympic 시설 문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당등 신도시 개발문제, 심각한 주택문제, 교통·공해·쓰레기 등의 도시 환경문제 및 대전 국제무역박람회등 국가적 건축이벤트에 정당하게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